

가톨릭정보

칼럼 + 교회 상식 + 문화 산책

참회의 순례자 1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등,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주의가 시작된 15 세기 부터 20세기에 이르기 까지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 호주, 아시아, 전 세계에 걸쳐 침략, 정복하고 약탈했으며, 원주민들의 대이동, 대량학살, 전통문화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착취했습니다.

식민주의를 시작한 유럽의 국가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였습니다. 식민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재앙이었으며 비참한 오류였습니다.

캐나다 지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쫓아내고 영국이 식민정부를 세우고 통치하게 되자 문제가 되고 있던 원주민 교육을 기숙학교 시스템으로 정하고 그 운영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기숙학교 정책은 정부가 세우고 그 운영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60% 정도의 기숙학교를 가톨릭 교회가, 나머지를 개신교회가 운영했습니다.

1880년부터 1996년 까지 약 130 개 이상의 기숙학교가 운영되었으며, 원주민 어린이들은 7살 어떤 아이는 4살에 강제로 기숙학교 (residential school)에 수용되었습니다. 120년동안 이 기숙학교를 거쳐간 어린이는 150,000 명에 달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풍습과 언어와 종교,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새 국가 캐나다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주민들을 하루 빨리 백인사회에 동화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캐나다 국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2015년 기숙학교의 운영은 문화적 대학살이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에 소속된 어른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원주민 인디언 어린이들은 어른이 된후에도 이때 받은 상처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나 술 또는 약물 중독등으로 고통속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학교에 수용된 아이들중 많은 아이들이 영영 집으로 돌아 오지 못했습니다.

2021 년 캐나다 진실 화해위원회 (TRC)는 옛날 기숙학교 부근에서 약 1000 여개가 넘는 표시 없는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전염병(스페인 독감, 결핵, 천연두 등), 사고, 예산부족, 영양실조, 자살, 학대 등의 이유로 죽었으며, 캐나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이들의 숫자가 4,100 명이라 발표했으나, 거의 6,0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7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캐나다 알버타에 은은한 북소리 와 함께 이곳 원주민 인디언이 그랬듯이 하느님의 용서와 치유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의 호수 (Nakota Sioux 들이 원래 부르던 곳) 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골프카트를 타고 갈 예정이었으나 대신 휠체어 를 타고 원주민 추장들과 함께 호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을 물리고 혼자서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백명의 원주민들도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수가에서 홀로 하느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교황님의 모습은 참회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알버타 마스크와치스 기숙학교 자리에서 원주민에 대한 학대와 강제 동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역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래는 교황님의 강론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옛날의 기억과 함께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참회의 순례의 첫 걸음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주민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을 지지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강제 동화정책과 기숙학교 정책은 재앙이었으며 예수님의 복음과 양립할수 없는 비참한 오류였습니다. 이 비참한 썩음에서 교회는 무릎을 꿇고 자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합니다. 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원주민 여러분에 행한 惡行에 대하여 겸허히 용서를 구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특히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무관심으로 당시 정부가 추진한 문화말살과 강제동화에 협력하는 방법이 기숙학교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는 점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이땅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가 원주민의 정체성과 경험을 받아 들이고 존중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 믿으며 기도 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깨달아 함께 걸어 갈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뉘 앞에 서서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앞에 서서 우리는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고통과 체념만을 남긴채 모든 희망과 꿈을 파묻는 구덩이, 무덤을 택하시어 새로운 생명과 인류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 생명의 탄생과 부활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 노력만으로는 상처의 치유와 화해를 이루기 충분하지 못합니다.우리에게는 조용 하고도 강력한 성령의 지혜와 부드러운 위로자이자 사랑이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염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정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주민의 전통에 온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 참회의 순례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에서 되풀이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식민

침식하고 제거하려 했던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고 캐나다의 가톨릭 공동체도 치유와 화해의 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윤석로 (이나시오) 부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3년
04월 0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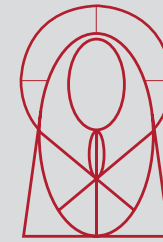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피에트로 로렌체티 <예루살렘 입성>1335-1336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 50,4-7
- # 화답송 시편 22(21),8-9.17-18 7.19-20.23-24(© 2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복음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26,14-27.6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 성가번호 입당 119 봉헌 216 성체 344 파견 115

✿ 에디슨 한인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종인(세레나)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병근, 윤옥선 - 가족
- 오소연(마리아) - 임 안나
- 황학성(야고보)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님, 이태석(요한) 신부님 - 썸머셋 구역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황선주(요셉피나)
- 염기선(베드로), 염미라(세실리아) - 황선주(요셉피나)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유리안나) - 이대우(베드로)
- 이대우(베드로) 가정 - 오경선(원선시오)
- 박재영(요아킴) 가정 - 오경선(원선시오)
- 이희숙(테레사)가정 - 오경선(원선시오)
- 성순영(라파엘) - 오경선(원선시오)
- 김동근(사도요한) - 이윤석(리처드)
- 김순옥(올리아) 가족 - 이윤석(리처드)
- 채희백(바오로) - 피스브릿지 구역
- 김 안나 - 피스브릿지 구역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하 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가정 - 썸머셋 구역
- 이주민(헬레나) 가정 - 썸머셋 구역
- 문 다리아 수녀님, 조 세실리아 - 백상현(요셉) 가족
- 오은주(로사) - 가족, 이서형(요안나), 최정원(레지나), 이소희(사라), 한지혜(크리스티나)

• 사랑하을 어머니 Pr. 1000차 주회 축하 - 꾸리아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3명).....\$1,409
 - 2차 헌금 (부활절 꽃 장식)..... \$530
 - 교무금\$1,500
- | | | |
|-----------|-----------|-----------|
| 곽신규 (3-4) | 김순옥 (1-3) | 김진 (3-4) |
| 박병태 (3-4) | 임문수 (4) | 김안나 (1-3) |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24까지 약정 금액은 \$21,557.14 (목표금액의 58.26%)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 4월 2일: 교구청 주관 은퇴 사제 및 수도자를 위한 헌금

✿ 2023성주간 전례 일정

- 4월 2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4월 3일(성월요일) 오전 9시 미사(영)
- 4월 4일(성화요일) 오전 9시 미사(영)
오후 4시 주교좌 성당 성유 축성 미사
- 4월 5일(성수요일) 오전 9시 미사(영)
- 4월 6일(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 7시(한/영)
성체조배(8시 - 12시; 시간 별 담당)
8시-9시 RAS
9시-10시 HNS
10시-12시 KCC
- 4월 7일(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시(한/영)
십자가의 길 저녁 7시(영)
- 4월 8일(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시(한/영)
- 4월 9일(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판공

• 성주간 수요일(4/5)까지 매 미사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주십니다. 고백소 앞에 비치된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시어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분과회의 안내

• 일시 및 장소: 4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부활 포장마차

• 4월 9일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부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 많이 참석하시어 각 친목단체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봄철 성당 주변 화단 가꾸기 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과 나무 및 꽃 구매 후원을 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 또는 유용희(올리아나)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 故 배인호(스테파노) 형제님 유가족분들께서 \$500, 남시동교회 어부들 마을에서 \$200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테네시 농장 농산물 주문

- 주문 마감: 4월 9일 (주일) 까지
- 물품 픽업: 4월 23일 (주일)
- 4월 특산품 식혜(\$18)도 있습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곽 올리아나 | 방진숙(테레사) |

✿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26,14—27.6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아득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